

남성 성역할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 수 애[†]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조 은 경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남성 성역할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한국형 남성 성역할 척도를 개발하였다. 20대 대학생과 40-50대 중장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남성 성역할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남성들이 서구의 남성들과 부분적으로 다른 성역할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구 남성들의 주요 성역할 요인인 과제지향성이나 성취지향성과 같은 요인들은 본 척도에서 주도성과 성취지향성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에 대한 책임도 공통적인 요인이었다. 반면 서구 남성 성역할의 공격성이나 남성간의 친밀성 거부, 정서 억제성과 같은 요인은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남성간의 의리가 우리나라 남성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남성 성역할로 확인되었다. 연구 2는 한국 남성들이 남성 성역할을 내면화한 수준과 적응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 개발한 척도와 자아 존중감, 우울증, 정서 표현성 등의 변인을 측정하여 본 결과, 연령 집단 공통으로 주도성 요인이 강할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 반면에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연령 집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20대 대학생은 남성 성역할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던 반면, 중장년 집단에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강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또한 20대 대학생들에게서는 남성 성역할과 정서 표현성간의 상관이 없었던 반면에 중장년 남성들은 주도성이 강할수록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20대 대학생들은 주도성이 강할수록 진로 정체감이나 학교 친구간의 적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에 대한 책임이 강할수록 진로 정체감이 낮았다. 중장년 남성들은 성취 지향성과 가정에 대한 책임이 강할수록 직업에 대한 불만을 더 갖고 있었던 반면, 주도성과 결혼에 대한 불만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역할, 한국형 남성 성역할 척도, 남성 성역할 갈등, 남성 성역할 갈등의 측정, 남성 성역할 갈등과 적응

^{*} 이 논문은 2000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CA0078)

[†] 교신저자: 박수애,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e-mail) psuac@chollian.net

성역할(Gender Role)이란 남성과 여성에 따라 각기 달리 기대되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그렇다면 성역할은 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960년대까지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성역할에 따른 특성은 선천적인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이미 결정되는 것으로, 이를 명료하게 구분 짓고 그에 적응하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적응과정이라고 믿었다. 즉, 여성은 여성다운 특성을 남성은 남성다운 특성을 보이는 행동을 할 때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적응을 잘한다는 것이다(Erikson, 1963). 그러나 1960 년대에 시작된 여성운동은 성역할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켰다. 성역할이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생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환경과 경험에 의해 획득되는 후천적인 특성으로 간주하고 성역할을 개인에게 부적응을 유발하는 사회문화적인 규제로 보는 관점이 확산되었다. 이런 변화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갖고 있는 양성적인 사람이 더 능력있고 성취 지향적이며 동시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것이라는 양성성 모델이 제안되었다(Bem, 1974).

심리적 적응과 성역할과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모델은 남성성 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중요하다고 보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남성적인 특성들이기 때문에 남성성이 심리적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Whitley(1983)는 자아 존중감을 중심으로 양성성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양성성의 사람이 심리적 적응도가 높은 이유가 여성성보다는 주로 남성성의 요인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남성다운, 즉 남성 성역할은 바람직한,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Broverman, Vogel, Broverman, Clarkson과 Rosenkrantz(1972)는 정신건강 문제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임상 심리학자, 정신과 전문 사회사업

가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상적이고 건강한 남성은 '유능하다, 독립적이다, 객관적이다'라고 기술하는 반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여성은 '감정에 호르기 쉬운 경향이 있다, 자만심이 있다, 순종적이다'처럼 덜 건강한 특성으로 기술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국에서 조사된 자료에서도 남성은 일반적으로 목표 지향적, 성취 지향적이어서 지도적 위치에서 직업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독립성과 지배성, 통제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권위적이며, 과묵하고 포용력이 있으며 무뎌뚱하여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에 여성들은 복종적이며 가정 내에서 가사를 돌보고 주위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돌보는 데 적합한 성격 특성들인 동정심, 의존성, 언어지향성, 내성적, 감정적인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김영희, 1988; 정진경, 1989).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여성적 특성이 정신적으로 불건강한 특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밝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남성적 특성으로 매우 건강한 특성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남성이 수동성, 무기력, 자신감의 결핍 등의 징후를 보이면 여성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의 남성들에 대한 연구는 남성 성역할도 여성 성역할만큼이나 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Feather와 Simon(1975)은 이런 가능성을 검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수용되지만 남성들은 성역할에 있어 부적절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또한 Deutch와 Gilbert(1976)의 연구에 따르면 '이상적 남성'으로서 자신을 지각하지 못한 남성들은 자기비하와 개인적 부적응을 겪고 있었다.

이처럼 남성도 성역할로 인한 심리적 장애를 겪는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은 "성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이라는 주제 하에 여성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었던 성역할에 대한 관심을 남성에게로까지 확대시켜 주었다. 성역할 갈등이란 "사회화를 통하여 학습된 엄격하고 제한적인 성역할이 개인의 가치를 비하시키거나 제한하고, 타인과 자신에 대한 공격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정의된다(O'Neil, 1990). 성역할 갈등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경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역할 갈등의 내용은 성역할 규범이 무엇인가가 따라 달라지므로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성역할 갈등은 다르다. 흔히 여성들이 느끼는 성역할 갈등의 양상이 "억압"과 "불평등"이라면 남성들이 느끼는 갈등의 양상은 "구속"이라고 표현되어 왔다(조형, 1988).

O'Neil(1982)은 남성이 경험하는 성역할 갈등은 기본적으로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의 사회적 환경을 통하여 습득된다고 하였다. 남성은 공격성, 독립성, 이성, 적극성 등의 남성적 특성을 내면화시키는 한편, 감정의 표현 등 여성적인 태도와 가치, 행동 등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회화된다. O'Neil(1981)은 보다 구체적으로 남성들이 느끼는 성역할 갈등은 "정서의 억제", "통제, 권력, 그리고 경쟁", "동성애에 대한 공포", "성적이고 친밀한 행동의 억제", "성취와 성공에 대한 강박", "건강관리의 문제"의 6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근거로 O'Neil과 그의 동료들이 남성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Gender Role Conflict Scale(GRCS)을 개발한 결과 남성 성역할 갈등을 구성하는 4가지 요인을 확인하였다(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성취와 유능감, 권력, 그리고 무엇을 얻거나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성공, 권

력, 경쟁"이 한 개의 독립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제한된 정서성",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인 "남성간 친밀한 행동 억제"가 또 다른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족관계에서 균형을 취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일과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이 남성 성역할 갈등의 하위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성역할 갈등과 적응의 문제

GRCS를 사용하여 남성 성역할 갈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아 존중감, 우울, 불안과 같은 개인적인 심리적 적응 변인과 대인관계 친밀도(intimacy), 결혼이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만족도 등 대인간의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자아 존중감을 다룬 Sharpe와 Heppner(1991)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들의 제한된 정서성, 남성간 친밀한 행동 억제, 일과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의 세 가지 하위요인이 자아 존중감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자아 존중감과 남성 성역할 갈등간의 관계는 그리 단순치 않다. Cournoyer(1994)은 중년 남성들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집단과는 달리 제한된 정서성만이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Sharpe(1993)는 성공한 중년 백인남성 집단을 조사하였는데 이 집단에서는 남성 성역할 갈등과 자아 존중감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남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조사한 Good와 Mintz(1990)의 연구에서는 4가지 성역할 갈등 하위 유형과 우울이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대학생 집단을 조사한 Sharpe와 Heppner

(1991)의 연구에서는 제한된 정서성과 일과 가족간의 갈등의 두 가지 하위 척도만이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중년 남성을 조사한 연구들도 서로 다른 결과를 얻었는데 Cournoyer(1994)의 연구에서는 제한된 정서성만이 우울과 상관을 보였고, 성공한 중년 백인남성 집단을 조사한 Sharpe(1993)는 성역할 갈등과 우울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불안이나 스트레스와 남성 성역할 갈등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에서도 남성 성역할이 이들 변인과 관련이 있었으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난 남성 성역할의 하위 요인들은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불안에 대한 Davis(1987)의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남성 성역할의 하위 요인들이 불안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대학생 집단을 조사한 Cournoyer(199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에서 성공, 경쟁, 권력 요인만이 불안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으며 중년 남성 집단에서는 제한된 정서성과 일과 가족간의 갈등 요인만이 불안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남성 성역할 갈등이 대인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은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대인간 친밀도가 낮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Rounds, 1994; Chartier & Arnold, 1985). 그러나 앞서 개인적 적응에 관한 변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연구에서는 제한된 정서성과 남성간의 친밀한 행동 억제 요인이 친밀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Good, Robertson, Fitzgerald, Stevens, & Bartels, 1994), 다른 연구에서는 성공, 경쟁, 권력과 제한된 정서성, 그리고 남성간의 친밀한 행동 억제의 세 요인이 친밀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Sharpe & Heppner, 1991).

결혼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남성 성역할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제한된 정서성과 일과 가족간의 갈등 요인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이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들을 보여준다. Cournoyer(1994)는 제한된 정서성이 결혼 만족도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Sharpe와 Heppner(1991)는 일과 가족간의 갈등이 관계에서의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Campbell과 Snow(1992)도 제한된 정서성과 일과 가족간의 갈등이 결혼 만족도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남성 성역할 갈등이 한 개인의 자아 존중감이나 우울, 불안 등의 개인적 적응이나 대인간 친밀도, 결혼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의 대인간 관계에서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하위 요인들이 각 변인들과 상관이 있는지의 여부는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특히 20대인 대학생들과 중년 남성들간의 결과가 달라서 연령에 따라 성역할 갈등의 영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들은 성역할이라는 것이 환경이나 맥락,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보다는 중년 남성이 일과 가족간의 갈등을 더 심각하게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남성 성역할 갈등에 대한 개념이 복잡한 현상에 비해 너무 단순하게 정의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척도가 현상을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남성 성역할 측정의 문제

GRCS는 남성 성역할 갈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성역할 갈등과 남성의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 연구 영역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남성 성역할 갈등 척도이다. 그러나 GRCS를 타당화하기 위해 다른 성역할 척도들과 비교해본 연구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다. GRCS의 총점은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척도(Spence & Helmreich, 1978)의 남성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성공, 파워, 경쟁의 하위 요인은 남성성과 정적인 상관이 유의하였다(Sharpe, 1993). 반면에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Chartier와 Arnold(1985)의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 요인 모두 남성성 역할 갈등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 외에 GRCS는 Toward the Male Role Scale(Doyle & Moore, 1978)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Moore, 1993), Attitudes Toward Men Scale(Downs & Engelson, 1982)과도 부적 상관이 있었다(Good & Mintz, 1990). 반면에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cale(Eisler & Skidmore, 1987)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Moore, 1993).

이처럼 GRCS와 다른 성역할 관련 척도들간의 상관이 일관성이 없게 나타난 원인 중의 하나는 GRCS가 다양한 성역할 관련 구인들을 복합적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이 척도에는 “출세하는 것이 중요하다”와 같이 남성 성역할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문항과 “바쁜 일과 건강관리 사이에서 고민을 느낀다”와 같은 구체적인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같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GRCS가 여러 구인을 복합적으로 측정하게 된 것은 아직 남성 성역할 갈등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Garnets와 Pleck(1979)은 성역할이 개인에게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과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성역할 격차 가설로서 성역할은 각 성에 적합한 일종의 사회적 기준을 제공하고 이에 부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남성들은 성공해야 하며 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성역할을 갖고 있으므로 성공하지 못한 남성이나 소극적인 성격

을 가진 남성들은 사람들은 성공한 남성들이나 적극적인 성격의 남성들보다 더 남성 성역할 갈등을 많이 느낄 것이다. 반면에 두 번째, 역기능적 특성 가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개인에게 내면화된 성역할이 주위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응을 방해하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남성 성역할은 남성들에게 성공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한다. 이런 남성 성역할에 대한 신념은 더욱 성취지향적이고 주도적이 되도록 하는 동기능력도 하지만, 성공에 집착하게 만듦으로써 대인관계를 무시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역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역기능적 특성 가설은 남성 성역할 규준에 따라 성공한 남성들도 성역할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성역할 갈등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Garnets와 Pleck(1979)이 제안한 성역할 갈등을 느끼게 되는 두 가지 과정 중에서 성역할 격차 가설에 따른 남성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남성 성역할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척도들이 있다. 이 척도들은 남성들이 “위기에 내지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평가된 상황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척도가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cale(Eisler & Skidmore, 1987)를 한국 상황에 맞게 윤진, 최정훈 및 김영미(1989)가 개발한 남성 스트레스 척도이다. 이 척도는 남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40개를 선정하여 각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토록 하였다. 이 척도에서 사용된 스트레스 상황들은 “군입대 및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나 “자기보다 아내의 학력이 높을 경우”등과 같은 상황들로 남성 성역할에 따른 행동 규범이 분명한 상황을 제시하여 주고 각 상황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

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는 성역할 때문에 개인이 역기능적인 특성을 갖도록 사회화됨으로써 그 역기능적 특성은 지속적으로 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회화된 역기능적 특성 가설에 따른 성역할 갈등의 특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사회화를 통하여 학습된 엄격하고 제한적인 성역할이 개인의 가치를 비하시키거나 제한하고, 타인과 자신에 대한 공격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남성 성역할 갈등에 대한 정의(O'Neil, 1990)는 일종의 사회적 가치규범으로써 남성 성역할을 얼마나 달성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 느끼는 성역할 격차에 따른 갈등 뿐만 아니라 사회화를 통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내면화된 남성 성역할이 갖는 부정적인 역기능으로 인해 부적응을 경험하는 역기능적 갈등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의 역기능적 특성으로 인한 성역할 갈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남성 성역할의 역기능적 영향, 즉 남성 성역할이 한국 남성의 삶과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남성들이 갖고 있는 남성 성역할의 신념 내용을 측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남성들이 이러한 성역할을 얼마나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가의 수준에 따라 한 개인의 적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남성 성역할의 하위 요인 별로 각 요인이 한 개인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성역할은 남성과 여성의 적절한 역할과 활동에 대한 신념으로 “여자 혹은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성역할에 대한 내용은 문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남성 성역할 척도의 대표적인 예인 GRCS의 요인들 중 제한된 정서행동 요인과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미국이나 서구의 문화에서는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일지 모르나 남성들간의 의리와 정이 중요시되는 한국 남성들의 성역할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Jo(2000)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남자 대학생들은 남성들간의 제한된 정서행동 문항들은 한국 남성 성역할의 대표적인 차원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GRCS를 한국 남성들에게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문화차이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한국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다른 요인들이 서구에서 개발된 성역할 척도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예: 가족 부양의 의무 등). 그러므로 한국 남성들의 남성 성역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규정된 남성이기 때문에 해야하는, 남성으로서 적절한 역할과 활동에 대한 신념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연구 1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남성들이 남성으로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2에서는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남성 성역할이 한국 남성들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남성 성역할을 엄격하게 내면화한 남성들은 남성으로의 성역할을 지나치게 추구한 결과, 오히려 개인적인 적응에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여러 남성 성역할의 하위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개인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였다. 어떤 남성 성역할은 자아 존중감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적응도와 같이 개인의 적응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 반면, 어떤 남성 성역할은 오히려 개인의 적응을 방해하는 역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 2에서는 개인의 적응과 관련된 여러 변인과 함께 연구 1에서 조사한 남성 성역할에 대한 내면화 정도를 조사하여 남성

성역할 중 어떤 하위 요인이 어떤 장면에서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1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 성역할 갈등을 단지 성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로 측정하거나, 남성 성역할에 대한 신념과 성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로 동시에 측정하는 척도들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한국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성역할 행동을 중점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또한 서구의 척도를 번안함으로써 우리나라 남성들 특유의 성역할이 제대로 포착되지 못할 가능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남성 성역할에 대한 서구 연구들과 한국의 문헌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남성들에게 기대되는 남성 성역할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추가로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남성 성역할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하여 본 결과, 남성 성역할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차를 최소한 반영하고 우리나라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남성 성역할 신념의 내용을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미혼인 20대 남성들과 대부분 기혼인 중년 남성들로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 법

질문지 구성

먼저 남성 성역할에 대한 서구의 연구들과 문

헌을 바탕으로 남성 성역할의 기본 차원을 엄격성, 자율성, 성취, 공격성의 네 가지로 선정하였다(O'Neil, 1981). 엄격성(Stoicism)은 남성은 고통을 타인과 나누어서는 안되며 공개적으로 슬퍼해서도 안되고 의존적이고 따뜻한 감정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차원이며 GRCS의 제한된 정서성 차원이 이 차원에 해당한다. 자율성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남성 성역할과 관련된 차원으로 남성은 혼자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취에 관한 남성 성역할은 일 뿐만 아니라 놀이 등 모든 활동에서 성공해야 하고 가족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격성은 남자는 터프해야 하고 필요하면 공격적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성역할 내용에 관한 요인이다.

이 4가지 기본 차원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조사된 한국 남성들의 성역할 차원에 대한 자료와 한국 남성 성역할에 대한 문헌(조혜정, 1988; 조형, 1988; 김효선, 허순희, 1995)을 분석하여 척도의 기본차원을 재구성하였다. 한국적 남성 성역할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이대일(1999)이 40-50대 남성 15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자료와 김종혁(1999)이 20대 남자 대학생 16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통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이들은 각 조사대상자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남자이기 때문에 요구되어졌던 행동들”, “남성다운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남성의 성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의 질문을 중심으로 면담을 하였다. 이대일(1999)과 김종혁(1999)이 조사한 면담 자료의 주요 질문과 응답 빈도는 표 1과 같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개별 면담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남성 성역할의 기본 요인으로 “책임감”, “남성간의 의리”, “성취”, “자율성”, “자제력”, “적극성(공격성)”의 모두 6개를 선

표 1. 이대일(1999)과 김종혁(1999)의 주요 설문 내용과 응답빈도

이대일(1999) - 중년남성면담	응답내용	응답빈도(명수)
부모/어른께 교육받은 남성 성역할의 내용은?	씩씩, 활발해야 함	5
	용감, 강인해야 함	6
	정직해야함	2
	권위를 가져야함	1
	성취, 우월해야 함	1
	별로 없음	3
친구, 동료, 선배로부터 교육받은 남성 성역할의 내용은?	의리있어야 함	8
	적극적이어야 함	4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함	2
	리더십이 있어야 함	3
	권위가 있어야 함	1
	포용력이 있어야 함	2
전통적으로 강조되는 남성 성역할의 내용은?	가장으로서의 책임	12
	신의	1
	신념	2
	권위	1
	경제적 주체	3
김종혁(1999) - 남자 대학생 면담	응답내용	응답빈도(명수)
부모/어른께 교육받은 남성 성역할의 내용은?	감정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함	7
	강인해야 함	5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함	4
	출세, 성공해야 함	4
친구, 동료, 선배로부터 교육받은 남성 성역할의 내용은?	출세, 성공해야 함	4
	강인해야 함	4
	의리있어야 함	3
	감정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함	2
	대범해야 함	2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함	2
전통적으로 강조되는 남성 성역할의 내용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함	14
	가문을 유지해야 함	3
	만능이 되어야 함	3
	리더십이 있어야 함	3

정하였다. 책임감은 남성으로서 가정이나 사회적 성간 의리는 남자로서 대인관계에서 신뢰와 의리로 책임을 지도록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며 남을 지키도록 요구되는 내용에 관한 요인이다. 성

취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해야 하며 경쟁에서 지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이며, 자율성은 주관 있게 혼자 자신의 일을 처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요구되는 요인이다. 자제력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서의 억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마지막 적극성은 남성들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요인이다. 본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선정된 6개의 남성 성역할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남성에게 요구되는 행동에 대한 문항들을 만들었고 Jα(2000)가 번역한 GRCS의 4개 차원 문항들도 포함시켰다. 이렇게 하여 최초로 구성된 기초 문항들은 총 148개였다. 이중 책임감에 해당하는 문항은 23문항이었으며 남성간의 의리 차원의 문항은 22문항, 성취 차원의 문항은 모두 26개였다. 자율성의 차원에 해당하는 문항은 22문항이었고, 자제력 차원은 35문항, 적극성(공격성) 차원의 문항은 20개로 구성되었다.

총 148개 기초 문항에 대하여 먼저 심리학을 전공한 5명의 박사급 전문가들에게 문항의 안면 타당도를 평가하도록 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성 성역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골라내도록 하였으며, 표현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표현으로 수정해 주도록 하였다. 5명의 전문가들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부적절한 문항 13개를 제외하였으며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문항들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전문가 평정을 통하여 수정된 135개 문항으로 2차 예비조사 설문지를 구성하여 20대의 남자 대학생 12명과 40-50대 남성 12명을 대상으로 “각 문항이 얼마나 남성다움을 표현하는지”를 7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7점-매우 그렇다)상에 평가하게 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기초 문항 중에서 남성다움의 성역할을 잘 표현하고

있지 못한 문항들을 제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였다. 각 문항의 평균이 7점에 가까울수록 남성 성역할을 잘 표현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남성 성역할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균 4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남성답다고 평가된 기준을 연구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균 5점으로 선정하여 135개 문항 중 평균이 5점 이상인 문항 95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95개 문항에 대하여 다시 심리학과 인류학을 전공한 11명의 박사급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척도의 6개 하위 요인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각 문항을 하위 요인별로 분류하는 card sorting과제를 3차로 실시하였다. 3차 예비조사인 card sorting과제결과를 근거로, 11명의 전문가들 중에서 9명 이상이 공통적으로 원래의 영역으로 정확하게 분류한 문항만을 선정하여 58개 검사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였다. 본 조사 응답자들에게는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평소 생활신조 혹은 생활태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정도를 7점 척도 상에 응답케 하였다. “매우 그렇다”는 7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하여 자신의 생각에 따라 적절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

연세대학교와 한림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과 40-50대 중장년 남성 458명을 조사하였다. 조사 응답자 중 다수의 문항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한 번호만을 계속 기재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26명의 자료를 제외한 43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중 남자 대학생은 285명으로 한림대학교 재학생이 157명,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128명이었으며 각각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었다. 남자 대학생의 평균연

령은 21.73세(표준편차 2.71)였다. 분석한 중장년 남성 응답자는 147명으로 평균연령이 47.42세(표준편차 5.01)였다. 중장년 응답자들의 자세한 인구 사회학적 배경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 및 논의

요인분석을 통한 최종 문항 선정

총 432명이 응답한 58개 문항의 남성 성역할 태도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시 추출 요인을 6개로 지정하였으며 주축분해법(principle axis analysis)과 varimax 회전을 사용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전체적으로 너무 낮거나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비슷한 요인 부하량을 보인 25문항을 제외하였으며 생성된 요인들의 고유치 증가분과 설명변량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요인 수를 5개로 확정하였다. 표 1은 선정된 5요인에 대한 33문항의 요인분석 결과이다. 요인 1로 묶인 문항은 모두 7개로 대체로 성공과 성취에 대한 추구를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성취지향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7개 문항으로 남성들간의 의리와 우정에 관한 문항들이어서 “남성간 의리”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요인 3으로 묶인 7개 문항은 냉정한 일처리와 관련된 문항들로써 “과제 지향성”이라고 이름지었다. 요인 4는 책임 및 결단성과 관련된 6개 문항으로 “주도성”이라고 하였으며 요인 5는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내용의 6개 문항으로 “가정에 대한 책임”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5개 요인간 상관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는데 주도성이 과제 지향성과 .74로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성취 지향성과 남성간 의리 요인과의 상관도 각각 .51과 .50으로 높은 편이어서 이들 세 요

표 2. 중장년 응답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

		명수	%
직업	경비원	6	4.1
	벤치인	1	.7
	상업	4	16.3
	숙박업	3	2.0
	약사	1	.7
	운수업	6	4.1
	운전자	1	.7
	의사	3	2.0
	자영업	12	8.2
	직장인	3	2.0
	회사원	82	55.8
결혼상태	무응답	5	3.4
	합계	147	100.0
결혼상태	기혼	142	96.6
	이혼	2	1.4
	재혼	3	2.0
	합계	147	100.0
교육수준	고졸	15	10.2
	전문대졸	75	51.0
	대졸	53	36.1
	대학원재학 이상	4	2.7
	합계	147	100.0
자기 수입	100만원 미만	8	5.4
	100-199 만원	65	44.2
	200-299 만원	64	43.5
	300-399 만원	9	6.1
	500만원 이상	1	.7
	합계	147	100.0

인간의 중복성이 다른 요인들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높은 상관은 이들 요인들을 서로 독립적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을 시사하나 앞서 면담자료나 전문가 평정에서 서로 다른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음을 고려하여 분리된 요인으로 취급하였다.

표 3. 한국 남성 성역할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최 종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1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	0.76	0.09	0.16	0.27	0.06
2	남자에게는 출세하는 것이 중요하다.	0.72	0.12	0.18	0.11	0.20
3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한다.	0.62	0.15	0.34	0.22	0.09
4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성공할 수 있다.	0.60	0.06	0.29	0.18	0.12
5	자신이 하는 일에서 유능함을 인정받아야 한다.	0.59	0.15	0.32	0.22	0.03
6	남자들은 성취와 성공 수준으로 그들의 가치가 평가된다.	0.57	-0.01	0.23	0.16	0.11
7	때때로 직업적 성공으로 남성의 가치는 정의된다.	0.55	0.11	0.17	0.04	-0.02
8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0.11	0.70	0.21	0.12	0.21
9	남성간의 우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0.06	0.61	0.14	0.23	0.05
10	친구의 일은 내 일처럼 도와주어야 한다.	0.07	0.60	0.24	0.08	0.22
11	친구간의 경조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도와줘야 한다.	0.22	0.57	-0.01	0.21	0.08
12	친구의 부탁이면 어렵더라도 기꺼이 들어준다.	0.07	0.57	0.20	0.05	0.17
13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들끼리의 의리는 지켜야 한다.	0.18	0.49	0.35	0.19	0.07
14	내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친구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	0.01	0.46	0.12	0.36	0.06
15	때로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소신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	0.16	0.07	0.60	0.33	-0.17
16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겁내지 말아야 한다.	0.12	0.10	0.57	0.03	0.09
17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0.12	0.13	0.56	0.20	0.15
18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0.09	0.26	0.47	0.21	0.04
19	위험한 순간에 과감한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0.10	0.08	0.47	0.21	0.30
20	위험적인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맞서야 한다.	0.15	0.22	0.45	0.02	0.36
21	결과가 어찌됐건 한번 과감하게 밀어붙여 볼 줄도 알아야 한다.	-0.01	-0.09	0.38	0.28	0.23
22	내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책임진다.	0.12	0.10	0.03	0.69	0.02
23	자신에게 부과된 일은 끝까지 책임진다.	0.11	0.04	0.30	0.55	0.19
24	소심하게 굴지 않는다.	0.19	0.27	0.18	0.50	0.10
25	남들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0.17	-0.19	0.31	0.48	0.07
26	결단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는다.	0.01	0.12	0.26	0.47	0.12
27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0.17	0.12	0.31	0.40	0.01
28	가족을 위해서는 싫은 직장이라도 다녀야 한다.	0.12	0.19	0.05	0.08	0.59
29	가족을 위해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해야 한다.	0.24	0.14	0.25	0.26	0.51
30	가정이 있는 남자는 함부로 직장을 그만 두지 않는다.	0.12	0.13	0.15	0.18	0.48
31	가족의 행복은 가장으로서 남성의 역할에 달려 있다.	0.23	0.17	0.12	0.21	0.44
32	집안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남자의 책임이다.	0.28	0.17	0.10	0.16	0.42
33	학교/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가족 때문에 그럴 수 없다	0.23	0.22	0.17	0.27	0.37
	고유가	16.082	3.381	2.985	2.037	1.739
	설명변량(%)	26.791	4.879	4.260	2.479	2.024

표 4. 요인간 상관행렬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1: 성취 지향성	1.000				
요인 2: 남성간 의리	.392***	1.000			
요인 3: 과제 지향성	.478***	.453***	1.000		
요인 4: 주도성	.513***	.504***	.741***	1.000	
요인 5: 가정에 대한 책임	.508***	.474***	.288***	.351***	1.000

*** p<.001

척도의 신뢰도

본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Cronbach의 내적 일치도 계수(α)를 산출하였다. 먼저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90로 상당히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각 하위 요인별로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았다. 성취 지향성은 .82로 매우 높았으며, 남성간 의리도 .85로 상당히 높았다. 반면, 과제 지향성은 .64로 낮았으나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이었고 주도성은 .71이었고 가정에 대한 책임은 .73으로 높은 수준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요약해보자면, 연구 1에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요인은 엄격성, 자율성, 성취, 공격성, 책임감, 남성간의 의리 등 여섯 개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요인에 대하여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성역할을 묘사하는 문항들을 만들어 조사를 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성취 지향성, 남성간의 의리, 과제 지향성, 주도성, 가정에 대한 책임의 다섯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GRCS(O'Neil, 1981)의 요인들과 비교하여 보면, GRCS의 “성공, 권력, 경쟁”, “제한된 정서성”, “남성간 친밀한 행동 억제”, “일과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의 네 가지 요인들 중에서 “성공, 권력, 경쟁” 요인은 본 연구의 “성취 지향성”, “주도성” 요인과 비슷하고 “일과 가

족관계에서의 갈등”요인은 “가정에 대한 책임”요인과 유사하다.

논의

본 연구결과 도출된 한국 남성들의 성역할 요인들은 우리나라 남성들이 갖는 남성 성역할의 내용이 서구 남성들의 그것과 부분적으로 유사하기는 하나 일부 전혀 다른 요인(예: 남성간의 의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남성들의 남성 성역할 갈등척도인 GRCS의 “제한된 정서성”과 “남성간 친밀한 행동 억제” 요인은 본 연구에서는 탈락하였고 새로이 “남성간의 의리” 요인이 등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포함시켰던 GRCS 문항들이 문항 개발과정에서 대부분 탈락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의 남성 성역할을 구성하는 일부 요인이 서구의 그것과 유사하다 할지라도(예: 성취지향성) 그 요인이 행동으로 실천되는 구체적 내용에서는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제한된 정서성”은 J α (2000)의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한국 남성의 성역할로서는 두드러지게 부각되지 않았다. “제한된 정서성”은 정서적인 면을 억제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과제 지향성 요인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우리 나라 남성들이 정에 약하다”는 이전 조사결과(이대일, 1999)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 남성들은 정서적인 면에 대해서 서구 남성들과는 다른 성역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정에 약한 우리 나라 남성의 모습은 공격성을 포함하는 남성적인 파워나 지배성과 같은 서구 남성 성역할의 요소들이 본 척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가정에서의 책임은 서구보다 한국에서 남성들에게 더욱 중요시되는 남성 성역할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서구 남성들이 갖고 있는 다른 남성과의 친밀함의 거부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혀 부적절한 남성 성역할 차원으로 드러났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히려 남성들간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남성 성역할로 나타났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척도를 사용하여 남성 성역할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이상적 남성상과 실제 자신의 모습간의 차이로 인해 유발되는 성역할 갈등보다는 일부 내면화된 성역할 특성 자체가 개인의 적응에 역기능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성역할의 역기능적 특성 가설(Garnets & Pleck, 1979)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 남성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 갈등 양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남성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이 적응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개인의 적응을 방해하는 역기능도 함께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앞서 연구 1을 통하여 드러난 한국 남성들의 5가지 성역할 하위 요인(성취 지향성, 남성간의 의리, 과제 지향성, 주도성, 가정에

대한 책임)들이 개인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가적으로, 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성역할은 개인의 적응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Sharpe와 Heppner(1991)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남성 성역할 갈등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게 나온 반면에 Sharpe(1993)는 성공한 중년 백인남성 집단을 조사하였고 이 집단에서는 남성 성역할 갈등과 자아 존중감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는 연령대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령에 따라 성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 대한 경험이 다르고 또 그로 인해 성역할에 대한 자기 관여도가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연령별로 성역할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가 달리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것인가 아니면 분유를 먹일 것인가는 이미 육아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엄마의 태도가 좋은 예측변수가 되지만 초산일 경우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가 더 큰 영향 변수로 나타났다(Manstead, Proffitt & Smart, 1983). 이처럼 남성 성역할과 개인의 적응을 매개하는 중요 변인일 가능성이 있어, 20대 대학생 집단과 40-50대 중장년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를 함으로써 연령대별 특성을 함께 알아보았다.

한 개인의 적응은 크게 개인수준의 적응과 대인관계에서의 적응으로 나누어 측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두 부분에서의 적응을 나누어 측정하였다. 개인수준에서의 적응을 반영하는 변인으로 자아 존중감과 우울을 선정하였고, 부가적으로 정서 표현성도 함께 조사하였다. 정서 표현은 대표적인 남성 성역할의 역기능적인 차원으로, 남성들은 정서표현을 남성답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슬프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게 되면 그 결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Good & Mintz, 1990)고 한다. 그리

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개인수준의 적응을 반영하는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대인관계에서의 적응은 연령대별 조사대상자의 연령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즉, 20대 대학생 집단에게는 주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중장년 집단에게는 중년갈등 척도를 사용하여 부부간 관계 등에서의 적응을 살펴 보았다.

방 법

질문지 구성

연구 2에서 조사한 질문지는 남성 성역할의 내면화 수준을 알아보는 내용과 응답자들의 적응수준을 알아보는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남성 성역할에 대한 응답자들의 내면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1에서 개발한 남성의 성역할 척도 3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여 자신이 한국 남성들이 지향하는 남성 성역할을 어느 정도 내면화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7점 척도(매우 일치한다'-7점,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1점)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남성 성역할 척도와는 별개로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남성으로서의 부담감과 만족감을 측정하고자 “귀하는 남성으로서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와 “귀하가 한 남성으로서 살아온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전반적인 남성 성역할 부담감과 만족감을 각각 측정하였다(7점 척도, 7-‘매우 만족한다’(‘그렇다’), 1-‘매우 불만족한다’(‘아니다’)).

모든 응답자들은 개인적인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1965) 10문항, 우울증 척도(Radloff, 1977; CES-D) 27문항, 감정표현성 척도 17문항(King & Emmons, 1990)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아 존중감은 5점 척도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 높다고 해석된다. 우울증은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과 관련된 현상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0점(‘전혀 없음’)부터 3점(‘매일 있음’)으로 응답케 했다. 응답범위는 0점부터 81점 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을 심하게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감정 표현 척도는 6점(1점 ‘전혀 아니다’, 6점 ‘항상 그렇다’)척도로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을 외부로 잘 표현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1개의 문항(귀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을 첨가하였다(7점 척도, 7-‘매우 만족한다’, 1-‘매우 불만족한다’).

연령대에 따라 경험하는 적응문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대별로 일부 내용을 달리하여 측정하였다. 대학생 집단에게는 Holland, Daiger 및 Power(1980)가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를 변안한 진로 정체감 검사를 사용하여 진로 정체감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는 진로 정체감이 불분명한 정도를 4점 척도(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아니다’)로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학생 응답자들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대학 생활, 동아리 생활, 친구관계에서의 적응도를 묻는 질문을 연구자가 구성하여 질문지에 수록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가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반면에 중장년 집단에게는 김애순과 윤진(1993)이 개발

한 중년기 위기감 척도의 6개 하위척도 중 개별화 과정(14문항)과 직업 불만족도(10문항), 그리고 결혼 불만족도(10문항)만을 조사하였다. 개별화 과정이란 생의 전반에 대한 의문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삶에 대한 재평가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외면되었던 면들을 인식하고 자신(self)을 더욱 전체로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김애순, 1990)을 현재 어느 정도 강하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하위 척도이다. 직업 불만족도와 결혼 불만족도의 하위 차원은 각각 현재의 직업이나 결혼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이나 결혼에 불만스러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대상

연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 161명과 40-50대 중장년 남성 1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 응답자는 각 학교의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장년 남성들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중/고등학교 교사와 보험회사 회사원, 그리고 대한항공 회사원들과 기타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대학교 교직원, 우체국 직원, 은행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응답자 중 다수의 문항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한 번호만을 계속 기재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명의 자료를 제외한 27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중 남자 대학생은 157명으로 남자 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21.9세(표준편차 2.57)였다. 분석한 중장년 남성 응답자는 120명으로 평균 연령이 48.35세(표준편차 5.21)였다. 중장년 응답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중장년 응답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인구학적 변인	명수	%
직업	중/고교 교사	30 25.0
	보험회사 직원	22 18.3
	항공회사 직원	28 23.3
	기타	10 8.4
	무응답	30 25.0
	합계	120 100.0
결혼상태	기혼	110 91.6
	동거	2 1.7
	재혼	3 2.5
	무응답	5 4.2
	합계	120 100.0
교육수준	중학교	4 3.3
	고등학교	8 6.7
	전문대학	7 5.8
	대학	69 57.5
	석사	22 18.3
	박사	5 4.2
	무응답	5 4.2
	합계	120 100.0
자기 수입	100-199 만원	13 10.8
	200-299 만원	29 24.2
	300-399 만원	28 23.3
	400-499 만원	22 18.3
	500만원이상	23 19.2
	무응답	5 4.2
	합계	120 100.0

결과 및 논의

연령집단간 남성 성역할 차이

먼저 남성 성역할에 대한 내면화 수준이 연령 집단별로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전체 성역할에서

표 6. 연령집단간 남성 성역할의 차이검증 결과

	20대 대학생	중장년	합계	t값
남성 성역할 총점	5.34(.56)	5.68(.56)	5.49(.58)	5.086***
성취 지향성	5.40(1.06)	5.55(.86)	5.47(.98)	1.203
남성간 의리	5.29(.78)	5.45(.75)	5.36(.77)	1.726
과제 지향성	5.69(.64)	5.74(.69)	5.71(.66)	.694
주도성	5.59(.79)	5.99(.68)	5.76(.77)	4.333***
가정에 대한 책임	4.72(1.00)	5.69(.79)	5.14(1.04)	8.750***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 $p < .001$

의 차이 뿐만 아니라 각 하위 요인들간의 차이가 있는지 또 이러한 차이가 연령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5개 하위 요인들간의 공변량을 보여주는 Wilkes Lamda가 .27($p < .001$)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연령 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1, 274)=22.82, p < .001$). 표 6의 남성 성역할의 총점에 대한 연령 집단간 평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장년 남성들이 20대 대학생들보다 훨씬 남성 성역할에 대한 내면화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성역할의 하위 요인들간의 차이도 유의하였고($F(4, 1096)=163.42, p < .001$) 과제지향성과 주도성에 대한 내면화 수준이 가정에 대한 책임보다 높았다. 그리고 연령집단과 하위 요인간 상호작용도 유의하게 나타났다($F(4, 1096)=16.51, p < .001$).

표 6의 평균을 살펴보면 7점 척도 상에서 거의 모든 요인들의 평균이 5점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남성 성역할에 대한 내면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령 집단과 성역할 척도 요인들간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는데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어느 요인에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요인에 대하여 연령집단별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을

살펴보면 20대 대학생 집단과 중장년 집단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요인이 가정에 대한 책임 요인으로 이 요인에 대하여 중장년 집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더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성 요인도 중장년 집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성취 지향성이나 남성간 의리, 과제 지향성은 20대 대학생이나 중장년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들 하위 요인들은 세대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해석된다.

남성 성역할 척도와 별개로 측정된 남성 성역할에 대한 만족감과 남성 성역할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도 연령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만족감과 부담감간의 차이도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성역할 만족감과 부담감은 피험자내 변인이고 연령 집단은 피험자간 변인이므로 M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역할 만족감과 부담감간의 공변량을 보여주는 Wilkes Lamda가 .92($p < .001$)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성역할 만족감과 부담감의 주효과가 유의한($F(1,269)=22.34, p < .001$) 반면 연령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 집단에 따른 만족감과 부담감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였다($F(1,269)=37.25, p < .001$). 전반적으로 남성들은 남성으로서의 부담감(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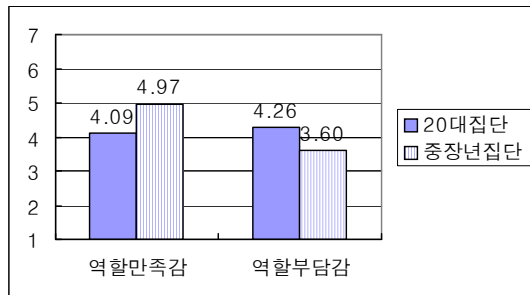


그림 1. 연령 집단별 남성 성역할 만족도와 부담감

3.93)보다는 만족감(평균 4.53)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역할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부담감의 정도는 연령 집단에 따라 달랐다. 그림 1과 같이 남성으로서 살아온 역할에 대한 만족감은 중장년 집단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 더 높았는데 비하여 남성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은 대학생 집단에 비해 더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집단간 적응도 분석

다음으로 두 연령 집단 공통으로 조사한 변인을 중심으로 연령 집단간 주요 적응도 변인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자아 존중

표 7. 연령집단간 적응도 변인의 평균

	20대 대학생	중장년
자아 존중감	35.36 (5.59)	36.24 (5.32)
우울증	25.45 (12.24)	23.80 (13.11)
감정표현	58.85 (13.00)	60.39 (10.58)
삶에 대한 만족도	4.37 (1.18)	4.89 (1.25)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감이나 우울증, 정서 표현성에서는 20대 대학생 집단과 중장년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단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만 연령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t=6.07$, $p<.001$) 표 7과 같이 중장년 집단이 20대 대학생 집단보다 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남성 성역할 내면화 수준에 따른 적응도 분석

중장년 집단과 대학생 집단을 합한 모든 집단에 대하여 성역할 태도와 적응도 관련 변인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남성 성역할 총점은 자아 존중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남성

표 8. 전체 응답자의 남성 성역할에 대한 내면화 수준과 적응 관련 변인간 상관관계

	자아 존중감	우울증	감정표현	삶에 대한 만족도
남성성역할 총점	.126*	-.059	-.015	.141*
성취 지향성	-.010	.040	-.0.0	.003
남성간 의리	.142*	-.044	.065	.131*
과제 지향성	.112	-.113	-.059	.097
주도성	.243***	-.207**	-.047	.195**
가정에 대한 책임	.008	.054	.009	.088
성역할 부담감	-.198**	.188**	-.083	-.058
성역할 만족감	.217***	-.288**	.033	.442***

(주) 양방향 검증, * $p<.05$, ** $p<.01$, *** $p<.001$

성역할을 강하게 내면화했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만족감과 부담감에 따른 적응도를 분석하였다.

표 9. 20대 대학생 집단의 남성 성역할의 내면화 수준과 적응 관련 변인간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우울증	감정표현	삶에 대한 만족도
남성성역할 총점	.060	-.116	-.004	.138
성취 지향성	-.032	-.045	-.019	.020
남성간 의리	.126	-.062	.029	.159*
과제 지향성	.049	-.175*	-.043	.106
주도성	.175*	-.201*	.040	.148
가정에 대한 책임	-.067	.028	-.015	.047
성역할 부담감	-.105	.086	-.041	.249**
성역할 만족감	.191*	-.220**	.037	.442***

(주)양방향 검증, * $p < .05$, ** $p < .01$, *** $p < .001$

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남성 성역할의 하위 요인들 중에서 남성간의 의리 요인과 주도성 요인도 자아 존중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주도성이 우울 수준과 부적 상관이 있음이 드러났는데 주도성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다.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성역할 부담감과 만족감은 자아 존중감과 우울증에 있어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았고 우울 성향이 높았다. 반면 남성으로서의 자신의 성역할에 만족할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았고 우울 점수가 낮았다. 삶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성역할 만족감만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20대 대학생 집단의 남성 성역할 태도에 따른 적응도 분석

앞서 분석에서 남성 성역할의 내면화 정도가 연령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연령 집단 별로 남성 성역할 내면화 수준 및 성역할

대학생 집단에 대하여 남성 성역할과 적응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남성 성역할과 적응도에 관련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았다. 남성 성역할 척도 중에서는 과제 지향성과 주도성이 우울증과 부적 상관이 있어서 과제 지향성과 주도성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감정 표현은 남성 성역할 수준과 아무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20대 대학생 집단에서 남성 성역할에 대한 만족감은 우울증과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성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낮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았다. 또한 성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성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성역할에 부담감을 느낄수록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를 얻었다. 다소 상식과 어긋나는 이 결과는 후속 연구에서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남성 성역할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정체감, 각 장면별 적응도와 성역

표 10. 20대 대학생 집단의 남성 성역할 내면화 수준과 장면별 적응 관련 변인간 상관관계

	진로정체감	전반적적응
남성성역할 총점	-.026	.152*
성취 지향성	-.134	.118
남성간 의리	.042	.085
과제 지향성	.081	.075
주도성	.209**	.212**
가정에 대한 책임	-.176*	.008
성역할 부담감	-.066	-.063
성역할 만족감	.068	.010

(주) 양방향 검증, * $p < .05$, ** $p < .01$

할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주도성과 가정에 대한 책임이 대학생들의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인은 진로 정체감에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주도성이 높을수록 진로 정체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정에 대한 책임이 강할수록 진로 정체감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남성 성역할이 한 개인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 역할과 역기능적 역할을 동시에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더구나 주도성은 진로 정체감 뿐만 아니라 동아리에서의 적응도를 제외한 학교와 친구관계에서의 적응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동아리에서의 적응도는 주도성과 성취지향성과도 역상관이 유의하여 주도성이나 성취지향성이 높을수록 동아리 적응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리에서의 적응도를 묻는 문항의 내용이 “동아리활동에 별 관심이 없다(역코딩 문항)”,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즐겁다”등 동아리 활동에 활발하게 참가하고 있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현재 대학생들을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즉, 성취지향성이나 주도성이 높은 남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기보다는 독립적인 활동을 더 선호하는 현 특성을 반영

표 11. 중장년 집단의 남성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적응관련 변인간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우울증
남성성역할 총점	-.197*	.081
성취 지향성	-.183*	.083
남성간 의리	-.042	.135*
과제 지향성	-.039	.074
주도성	-.193*	.173*
가정에 대한 책임	-.130	.186*
성역할 부담감	.089	.322***
성역할 만족감	-.049	.025

(주) 양방향 검증, * $p < .05$, ** $p < .01$, *** $p < .001$

한 결과로 여겨진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자아 존중감이나 우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같이 매우 심리적인 적응도를 측정한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성역할 만족감이 구체적 장면에서 적응을 측정한 변인들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장년 집단의 남성 성역할 태도에 따른 적응도 분석

중장년 집단의 남성 성역할에 대한 신념과 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대 대학생 집단보다 좀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주도성이 자아 존중감과 상관이 유의하였으며 20대 대학생 집단에서는 관계가 없었던 과제 지향성도 중장년 집단에서는 자아 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이 유의하게 나왔다. 그러나 20대 대학생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 성역할 태도 척도 중에서 성취 지향성이나 남성간 의리의 요인은 자아 존중감이나 우울증, 정서 표현과 같은 변인과 상관이 없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우울 수준과 관련된 남성 성

표 12. 중장년 집단의 남성 성역할과 중년기 위기감간 상관관계

	개별화과정	직업불만	결혼불만
남성성역할 총점	.176*	.154	-.097
성취 지향성	.168	.251**	-.003
남성간 의리	.081	.009	.013
과제 지향성	.132	.042	-.135
주도성	.142	.046	-.203*
가정에 대한 책임	.130	.190*	-.066
성역할 부담감	.171	.258**	.359***
성역할 만족감	-.038	-.435***	-.461***

(주) 양방향 검증, * $p < .05$, ** $p < .01$, *** $p < .001$

역할 변인이 20대 대학생 집단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중장년 집단에서는 20대 학생 집단에서와 같이 성역할 만족감이 낮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낄수록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록 우울 점수가 높았다. 또한 20대 대학생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로 주도성은 감정표현과 부적인 상관을 보여 주도성이 높을수록 감정에 대한 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집단의 남성 성역할과 중년기 위기감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있다. 남성 성역할의 총점은 중년기 위기감 척도 중 개별화 과정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중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개별화 과정은 자신(self)을 전체로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김애순, 1990)으로 남성 성역할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표현한 사람일수록 이런 개별화 과정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직업에 대한 불만도는 남성 성역할 척도 중에서 성취 지향성과 가정에 대한 책임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성취지향성, 그리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직

업에 대한 불만도가 높았다. 반면에 결혼에 대한 불만은 주도성 요인과 유의미한 역상관을 보였다. 주도성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요약 및 전체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남성 성역할을 측정하는 한국형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를 사용하여 남성 성역할의 내면화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남성 성역할의 내면화 수준이 우리 나라 남성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시도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 모두 20대와 40-50대 연령 집단별로 대상을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사전 문헌 조사결과 연령에 따라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성역할의 영향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령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남성 성역할의 내면화 수준에 있어서 세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남성 성역할이 남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 나라 남성 성역할이 서

구의 그것과는 다른 요인을 포함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한국적 문화특성에 알맞은 남성 성역할 척도를 개발하고자 연구 1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구 남성들의 성역할과 우리 나라 남성들의 남성 성역할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었다. 과제 지향성이나 성취 지향성과 같은 요인은 서구나 우리 나라 모두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내용으로 남성 성역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서구의 남성 성역할이 갖고 있는 공격성이라든가 지배성, 그리고 정서성의 억제와 같은 요인들은 우리 나라 남성들에게서는 중요한 남성 성역할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정에 대한 책임은 우리 나라 남성들에게 더 강조되고 있었다. 서구의 남성 성역할과 우리 나라 남성 성역할간의 또 다른 두드러진 차이는 같은 남성에 대한 태도로서, 서구 남성들은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바탕으로 한 남성에 대한 친밀감 거부라는 성역할 특성을 보이는 데 비하여 우리 나라 남성들에게서는 남성들간의 의리라는 요소가 남성 성역할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을 통하여 개발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척도를 사용하여 남성 성역할의 내면화 수준과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령 집단별로 남성 성역할의 내면화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20대 대학생 집단과 중장년 집단간에 남성 성역할의 내면화 수준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 이러한 차이는 주로 가정에 대한 책임과 주도성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두 요인에서만 연령 집단간 세대차이가 존재하였다. 가정에 대한 책임과 주도성 모두 중장년 집단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세대들은 구세대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

(Spence & Hahn, 1997)와 남성이나 여성 모두 점점 더 남성화되어 간다는 연구 결과(Twenge, 1997)가 모두 타당함을 보여준다. 즉, 가정에 대한 책임이나 주도성과 같은 남성 성역할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점차 약화되고 있으나 반면에 과제지향성, 성취 지향성, 남성간의 의리 등과 같은 요인들이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자질로 간주되고 또 요구되는 특성들로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20대 대학생이나 중장년 집단 모두 내면화 수준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남성 성역할 중 일부 요인이 우리 사회에서 한 개인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특성으로 기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서구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성역할 규준에 대해 보다 융통성 있는 사고를 갖게 되나(Maccoby, 1990) 우리 나라 남학생들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이가 들에 따라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유가호, 1994)결과도 함께 설명해 준다. 즉, 아직 우리 나라는 남성 성역할이 외국에 비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적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즉, 남성 성역할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한 개인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이 현대 사회에 이르러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특성에 맞게 새롭게 재편되어 더욱 강화되었다는 지적이 아직 타당하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는 시사한다. 경제 발전을 필두로 남성의 역할이 갖는 사회적 비중이 커짐으로서 사실상 “남성다움”의 압력과 억압은 어느 때 보다도 심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봉건적인 가부장적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진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더 완벽한 통제를 획일적 교육, 국가정책, 마스크 등을 통해 받게 된다(조혜정, 1988)는 지적이 본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가정에 대한 책임과 주도성 두 요인이 연령 집단에 따라 내면화 수준이 다른 결과는 20대 남성이나 40-50대 남성 모두 남성 성역할에 대한 신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나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에 따라 그 내면화 정도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이대일(1999)과 김종혁(1999)의 조사에서도 전통적으로 강조되는 성역할로 가정에 대한 책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40-50대 남성 15명 중 12명이었으며 20대 남성 16명중에서도 12명이나 동일한 응답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의 내면화 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연령 변인을 선정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았으나 조사 대상자 중 20대 남성 대부분이 미혼인 반면 40대 남성 대부분이 기혼이었으므로 연령과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가 구분되지 못하였다. 만일 직접적인 경험이 특정 성역할 요인의 내면화 수준에 영향을 준다면 가정에 대한 책임은 연령보다는 결혼여부가 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를 통하여 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남성 성역할의 내면화 수준과 개인의 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다. 20대 대학생 집단과 중장년 집단에서 모두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주도성과 남성 성역할에 대한 만족감으로 주도성이 높고 자신의 성역할에 만족할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 우울과 남성 성역할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연령 집단별로 두 변인간 관련성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학생 집단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성 성역할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갖고 있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서 남성 성역할이 20대 남성들에게는 매우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장년 집단에게서는 남성 성역할 중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낄수록 우울 수준도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가정한 대로 지나친 성역할 수용이 오히려 개인의 적응을 방해하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의 남성 성역할 갈등 연구들에서 남성 성역할의 부정적인 결과로 논의되어온 대표적인 변인인 정서 표현성에 관해서도 본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20대 남성 집단에서는 남성 성역할의 내면화 수준은 정서 표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장년 남성들에게서는 주도성이 높을수록 정서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세대간 성역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주도성 수준에서 세대간 차이가 없었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남성 성역할이 변했기 때문에 20대 남성들이 정서 표현의 억제를 덜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중장년 남성이 20대 남성들보다 훨씬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고 그런 상황에서 주도적이기 위해서는 정서를 억제해야한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성간의 의리도 세대에 따라 다른 영향을 주었다. 20대 남성들은 남성간 의리에 대한 성역할을 더 강하게 내면화할수록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런 양상은 중장년 남성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20대 남성들에게 더 남성간의 의리가 사회적 관계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각 연령대별로 중요한 적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측정해 본 결과에서는 20대 남성들의 진로정체감이나 친구간의 적응에 주도성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도성은 동아리 생활에서의 적응도에는 역기능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주도성이 높을수록 동아리 생활에서의 적응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집단에게서는 성역할 하위 요인 중에서 성취지향성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낄수록 직업에 대

한 불만도 높게 나타났다.

각 연령대별로 중요한 적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측정해 본 결과에서는 20대 남성들의 진로정체감이나 학교, 친구간의 적응에 주도성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간의 적응에 남성간의 의리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중장년 집단에게서는 이와 같이 한 요인이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구체적인 문제별로 관련된 성역할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년기 갈등의 한 특성인 개별화 과정은 특정 하위 요인보다는 전체 성역할 총점이 관련성이 있었으며 남성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강할수록 개별화 과정 점수가 높았다. 반면에 직업에 대한 불만은 성취지향성과 가정에 대한 책임이 강할수록 높았다. 결혼에 대한 불만은 주도성이 기능적인 영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도성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불만은 낮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가정된 대로 남성의 성역할은 반드시 역기능이지도 또 반드시 순기능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발달 단계에서의 적응에 남성 성역할이 부합하게 되면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주도성 요인으로 20대 남성에게서는 주도성에 가치를 두고 이를 추구할수록 적응이 잘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대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하나의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경향성은 중장년 집단에게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중장년 남성들도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낄수록 직업에 대한 불만이 강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중장년 남성들이 어느 정도 성공한 남성들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가족에 대한 책임이 강한 남성들은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직업적 성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현재의 직업

에 대한 불만이 강해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과거 성역할에 관한 연구들이 내렸던 결론이 아직도 유의함을 보여준다. 즉, 남성 성역할이 현대 사회에 바람직한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역할은 개인의 적응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증명된 추가적인 사실은 남성 성역할이 얼마나 바람직한가는 보다 구체적인 장면과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도성은 전반적으로 개인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주도성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았지만 중년 남성들의 정서 표현은 억제하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역할의 하위 요인별로 어떤 장면에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남성 성역할 자체가 적응에 역기능적 혹은 기능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보다는 구체적인 장면별로 어떤 성역할의 요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역기능적 혹은 기능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앞으로의 연구에서 조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 응답자들이 모두 어느 정도 성공한 남성들이라는 점이다. 중장년 남성 집단의 경우 자신의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박사 소지자까지 포함된 중상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대 남자들도 모두 서울의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4년제 대학 입학 여부가 중요한 성공의 잣대인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한 계층으로 분류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남성 성역할과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Whitley, 1983; 김영희, 1988; 정진경, 1989)이 남성적인 특성들이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요구되는 특성임을 지적하고 있으나 성에 대한 차별이 위헌인

이 시대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본 척도의 문항들이 여성들에게도 바람직한 속성인지를 추후 연구를 통하여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애순. (1990). 성인기 성격 발달에 대한 이론적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 74-88.
- 김영희 (1988). 한국 성역할 검사 개발연구 아세아 여성 연구, 27, 153-182,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 김중혁 (1999). 남성 성역할의 갈등연구: 한국의 전통적 관점과 현대 관점의 비교. 미발표 학사 학위논문, 심리학과, 한림대학교.
- 김효정, 허순희 (1995). 한국남자, 낮에도 뛰고 밤에도 뛴다. *지배문화 남성문화-또 하나의 문화*, 제 4호,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유가호 (1994). 아동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성역할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5(1), 127-144.
- 이대일 (1999). 기성세대 남성들의 성 역할에 대한 지각 연구. 미발표 학사 학위논문, 심리학과, 한림대학교.
- 정진경 (1989). 성역할 고정관념 및 특성이 기혼 여성의 취업에 따르는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의 경우. *한국사회심리학회지: 사회*, 8, 169-184.
- 조형 (1988). 남성지배문화의 극복과 인간다운 삶. *지배문화 남성문화-또 하나의 문화*, 제 4호,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조혜정 (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윤진, 최정훈, 김영미 (1989).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 스트레스와의 관계(I)-남성 스트레스 척도 개발과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심리학회지: 사회*, 8, 84-99.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ist*, 10, 105-112.
- Broverman, I. K., Vogel, S. R., Broverman, D. M., Clarkson, F. E., & Rosenkrantz, P. (1972). Sex-role stereotypes: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 59-78.
- Campbell, J. L., & Snow, B. M. (1992). Gender role conflict and family environment as predictors of men's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6, 84-87.
- Chartier, B. M., & Arnold, W. J. (1985, June). Male soci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nd intimacy in young college men. Paper presented at the 46th annual meeting of the 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alifax, Nova Scotia.
- Courmoyer, R. J. (1994). A developmental study of gender role conflict in men and its changing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Doctoral dissertation, Boston College).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54/12, 6476.
- Davis, F. (1987). Antecedents and consequents of gender role conflict: An empirical test of sex-role strain analysis(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48/11, 3443.
- Deutch, C. J., & Gilbert, L. A. (1976). Sex role stereotypes: Effect on perception of self and others and on person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23, 373-379.
- Downs, A. C., & Engelson, S. A. (1982). The

- Attitudes Toward Men Scale(AMS): An analysis of the role and status of men and masculinit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2, 45. (MS. 2502).
- Doyle, J. A., & Moore, R. J. (1978). attitudes Toward the Male Role Scale(AMR): An objective instrument to measure attitudes toward the male's sex role in contemporary society. *JSAS catalog of Seleted Documents in Psychology*, 8, 35-36. (MS. 1678).
- Eisler, R. M., & Skidmore, J. R. (1987).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cale development and components factors in appraisal of stressful situations. *Behavior Modification*, 11, 123-136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Feather, N. T., & Simon, J. C. (1975). Reactions to male and female success and failure in sex-linked occupations: Impressions of personality, causal attribution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different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0-31.
- Garnets, L., & Pleck, J. H. (1979). Sex role identity, androgyny, and sex role transcendence: A sex role strain analysi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 270-283.
- Good, G. E., & Mintz, L. B. (1990).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college mane: Evidence for compounded risk.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17-21.
- Good, G. E., Robertson, J. M., Fitzgerald, I. F., Stevens, M., & Bartels, K. (1994, August). The relation between masculine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male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clients. In J. Robertson & G. Good(Chairs), *Men, masculinity, and psychological servic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 Jo, E. (2000). Perception of gender-role conflict in Korean men. Paper presented in the 108th annual convention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 Washington, DC. August 4-8, 2000.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account. *American Psychologist*, 45, 513-520.
- Manstead, A. S. R., Proffitt, C., & Smart, J. I. (1983). Predicting and understanding mothers' infant-feeding intentions and behavior: Test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657-671.
- O'Neil, J. M. (1981). Male sex role conflicts, sexism, and masculinity: Psychological implications for man, women, and the counseling psychologis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9(2), 61-80.
- O'Neil, J. M. (1982).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in men's lives: Implications for psychiatrists, psychologists, and other human service providers. In K. Solomon & N. B. Levy (Eds.), *Man in transition: Changing male roles, theory, and therapy* (pp. 5-44). New York: Plenum.
- O'Neil, J. M. (1990). Assessing men's gender role conflict. In D. Moor & F. Leafgren (Eds.), *Problem solving strategies and interventions for men in conflict* (pp. 23-38).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O'Neil, J. M., Helms, B., Gable, R., David, L., & Wrightsman, L. (1986). Gender 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 Roles*, 4, 335-350.
- Rounds, d. (1994). Predictors of homosexual intolerance on a college campus: Identity, intimacy,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and gender role confli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onnecticut
- 1 차원고 접수일 : 2002. 5. 2.
수정원고 접수일 : 2002. 6. 16.
최종원고 접수일 : 2002. 7. 10.
- Sharpe, M. J. (1993). Gender ro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m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54/10, 5373.
- Sharpe, M. J., & Heppner, P. P. (1991). Gender role, gender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23-330.
- Spence, J. T., & Hahn, E. D. (1997).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nd attitude change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624-635.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8).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ir psychological dimensions, correlates, and antecedents*.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 Twenge, J. M. (1997). Changes in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over time: A meta-analysis. *Sex Roles*, 36, 241-273.
- Whitley, B. E. (1983). Sex 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766-778.

Male Gender Role and Adjustment of Korean Men

Suae Park

Yonsei University

Eunkyung Jo

Hallym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ale gender role on the adjustment of Korean men. In study 1 Korean Male gender Role Scale was developed. A 52-item scale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responses of 432 college-aged and middle-aged men to theoretically-derived preliminary items. Five factors were extracted: achievement orientation, the initiative, task orientation, responsibility for family and friendship with male friends. Study 2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gender role and several adjustment variables. Correlational analyses indicated that in the college men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initiative and friendship with male friend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life satisfaction. College men's depression level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initiative and task orientation. Among the middle-aged men, self-esteem was also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initiative and task orientation. But responsibility for famil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job dissatisfaction in the middle-aged men. In both groups satisfaction with male gender rol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but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gender role, Korean Male gender Role Scale, male gender role conflict, measurement of male gender role conflict,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adjustment